

<1번>

제시문들은 낭비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가)와 (나)는 낭비를 대하는 태도 및 낭비의 속성을 어떻게 파악하는지에 따라 구분된다.

우선, 제시문 (가)는 낭비를 긍정적으로 본다. (가)에 의하면, 인간은 활력 소모라는 낭비를 통해 도락 발현을 함으로써 기쁨을 누린다. 그러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피로를 추구해야 하며 이는 인간 생활을 위해 나타나는 현상이다. 즉, 자신의 흥미사항에 본연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정신 경향이다. 또한, 제시문 (가)는 원체적으로 사회의 경향 때문에 인간을 자유로운 상태에 내두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에 본인의 모종의 것을 소비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낭비에 대해서 본능적이고 선천적이라는 입장을 제시한다.

이와는 달리, 제시문 (나)는 낭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나)에 의하면, 프랭크 길브레스는 과학에 기반한 관리법을 통해 절약을 한다. 길브레스는 과학을 이용하여 벽돌공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재료의 위치를 최적화하며, 벽돌을 고르는 시간을 절약하게 하는 등, 벽돌쌓기에 대해 동작의 최적화를 통한 시간의 낭비를 줄이려는 시도를 하였다. 이는 낭비를 줄이려는 행위이다. 낭비를 줄임으로써 좀 더 효과적인 벽돌쌓기를 하려는 것이다. 낭비를 부정적으로 보아, 이것을 줄임으로써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또한, 제시문 (나)는 길브레스가 인위적으로 낭비를 줄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인위적인 관리 방법을 고안함으로써, 낭비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한다. 즉, 낭비에 대해 인위적으로 접근한다.

제시문 (다)에서는 인간은 망각을 통해 선택적으로 기억을 조합하여 효율성을 추구한다. (다)에 의하면, 망각은 기억하기 위해서 중요한 기억들을 선택하고 나머지를 버리는 행위이다. 이를 통해 원근 단축이 실현되며, 인간은 원근 단축을 통해 과거 회상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기억을 선택적으로 조합하고 망각을 하는 행위는 우리의 기억에 도움된다.

이러한 (다)의 논지는 (가)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다소 일치하지 않는다. (가)에 의하면, 낭비는 기쁨이라는 것을 누리기 위해 자발적으로 하는 행위이다. 낭비를 하여 인간 생활이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영위된다고 제시하는 (가)와 기억하기 위해서 낭비를 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망각을 하여 효율적으로 기억을 보존한다는 (다)는 다소 대립할 수 있는 논지이다.

반면, 제시문 (나)의 입장에서 (다)의 논지를 본다면, 다소 일치하는 면이 있다. (나)에 제시된 길브레스는 낭비를 과학적인 설계를 통한 인위적으로 없게 하여, 효율성을 추구한다고 한다. 이는 (다)에서 인간이 망각을 통해 낭비를 줄이게 하여 기억을 선택적으로 취합하여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점과 유사하다. 다만, (나)에서는 낭비를 과학적인 설계를 통하여 인위적으로 없앨 수 있다고 하며, (다)에서는 망각이 변칙적이고 불규칙적으로 드러난다는 점을 제시한 점은, 낭비를 없애거나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약간은 서로 다른 견해를 제시한 것이다. 즉, (나)와 (다)는 낭비를 부정적으로 보는 점은 유사하다. 그러나, 낭비에 대해 규칙적이고 정률적으로 낭비를 없애고 불규칙적으로 낭비를 없애는 점은 서로 차이를 보인다.

<2번>

(라)의 실험결과를 보면, 공개시간이 길어질수록, 최초 공개시 희미한 정도가 명확할수록 사진을 정확히 인지한다. 또한, 정확히 인지된 사진의 비율은 최초 공개시 희미한 정도에서 공개 시간보다 더 큰 차이를 보인다. 즉, 전반적으로 최초 공개시 희미한 정도라는 조건 하에서 피 실험자들은 더 큰 변별력에 의해 실험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에서의 길브레스는 명확하고 섬세한 기준을 두어 벽돌공에게 그 기준에 정확히 맞추어 일을 시켜, 효율적인 일을 하게 하였다. 이를 (라)의 상황에 적용해 본다면, 명확한 기준을 두어 정확히 그 기준에 의거하여 효율적으로 지원자들을 뽑으면 된다. 우선, (라)에서의 정확히 인지된 사진은 곧 사진을 정확히 맞춘 것이고, 이는 업무 수행 능력이 높다는 점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다. 이러한 점에 의거하여 신입채용자들을 뽑는다면 보다 더 효율적인 채용을 하고, 우수한 인재를 뽑을 수 있을 것이다.

회사의 신입사원 채용과정에는 경쟁률이 높은, 많은 지원자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채용담당관 입장에서는 개개인에 대한 검증의 시간이 별로 없다. 이는 (라)에서와 같이 공개 시간이 짧고, 최초 공개시 희미한 정도에 의해 우선 변별력이 큰 요소인 (라)에서의 최초 공개시 희미한 정도와 같은 변수로 변별력이 있게 지원자들을 거른다. 서류심사를 먼저 하기 때문에 변별력이 있는 기준으로 서류심사를 진행하면 된다. 그렇게 된다면, 지원자들 중에서 변별력 있게 인원을 추릴 수 있고, 다소 한정된 인원들을 서류전형에서 선발할 수 있다. 변별력을 가지는 기준에서 일정한 지원자를 서류심사에서 걸렀기 때문에, 뽑힌 한정된 인원들은 다소 업무 수행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1차 관문인 서류심사에서 다소 변별력 있게 걸러졌기 때문에, 2차 관문인 서류심사에서 채용담당관들은 한정된 인원들이기에 면접 시간을 오래 하여 섬세히 개개인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다.

면접심사에서는 보다 더 오랜 시간을 가지고 섬세한 기준을 적용해야 인재를 뽑을 수 있다. 1차 심사인 서류심사에서 변별력 있는 기준으로 인재들을 뽑았기에, 2차 관문인 면접심사에 응하는 지원자들은 대부분 실력이 있다. 즉, 지원자들 간에 편차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라)에 제시된 공개 시간과 같은 변수와 같은 편차가 크지 않은 기준으로 또다시 지원자들을 걸러야 한다. (라)에서 제시된 정확히 인지된 사진의 비율은 곧 업무 수행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공개 시간을 늘릴수록 지원자들은 정확히 사진을 인지한다. 공개 시간을 늘릴수록 그 정확히 인지된 사진의 비율 차이는 줄어든다. 대표적으로 최초 공개 시 희미한 정도가 상으로 같을 경우, 35초 공개된 사진과 122초 공개된 사진은 고작 0.1% 차이를 보인다. 여기에서 이미 1차 관문에서 변별력에 의해 편차가 큰 기준을 통과한 우수한 인재들을 또다시 섬세한 차이로 면접에서 세부 사항까지 자세히 봐 선별할 수 있다. 이러한 채용과정대로라면 변별력 있고, 꼼꼼한 기준으로 인재들을 선별 할 수 있다.